

## □ 심사평

- 사업명 : “청소년이여 낭랑하라!” -2016년 청소년 시축제-
- 심사기간 : 2016. 9.22(목) ~ 9.28(수)
- 심사방법 : 자택심사(서면심사)

### 1. 심사 대상 작품 및 심의과정

2016년 청소년 시낭송 대회(“청소년이여 낭랑하라!” -2016년 청소년 시축제-) 공모 기간 동안 응모된 작품 3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의위원 개인별로 자택심사를 통해 심사하였고 평가 결과인 채점표를 취합하여 총점 상위 순으로 본선 진출작(입선작)을 선정하였다.

### 2. 심사평

낭독의 힘은 시가 품고 있는 의미 너머에 것들, 가령 기미나 리듬 정서적 질감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학생들의 낭독을 거듭 들어보면서 이들의 느끼고 있는 시에 대한 열망에 오랜만에 따뜻했다.

낭독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사적인 소리다. 우리 청소년들의 작품 속에서 나는 시의 원색을 다시 경험했다. 무척 기쁜 일이다.

미디어나 그림으로 읽혀진 작품들도 좋았지만 음악과 시를 연결 짓는 창작 작품들에 유독 마음이 끌렸다. 좋은 시는 늘 음악과 닿아 있다.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노력한 게 인상적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개인의 경험들을 녹여내는 작품이 많았으면 하는 점이다. 주된 소재들이 학교, 친구, 부모님 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울타리 밖을 나와서 더 크고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크기를 키우면 세상을 보는 눈도 틀려질 것이다.

- 심의위원 일동 -